



The United Methodist Church

CHICAGO AREA EPISCOPAL OFFICE

77 West Washington Street • Suite 1820 • Chicago, Illinois 60602
Office: (312) 334-0702

Sally Dyck
Bishop

E-mail: bishop.dyck@umcnic.org

Rev. Arlene W. Christopherson

Assistant to the Bishop/Director of Connectional Ministries

E-mail: achristo@umcnic.org

Monday Morning Video

월요일 아침 영상: 2020 년 9 월 21 일

“어렵고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렵고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사이에 놓였던 경험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과 파라오의 억압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면서 어렵고 피할 수 없는 선택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출애굽기 14 장에 있는 이야기를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침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파라오의 손아귀를 훨씬 넘어 섰다고 생각하면서 황급히 광야로 나왔을 때 홍해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에서 병거와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합니까? 어떤 쪽을 직면 해야 할까요?

저는 그들이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정말 노예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까요? 하지만 그것도 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무덤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모세를 고발하며 불평했습니다.

불확실한 상태의 삶은 결코 쉽고 편안한 것이 아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40 년 동안의 광야의 삶은 불확실 했습니다. 내일도 음식이나 물을 먹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 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 올지도 불확실합니다. 종종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그들은 그들에게 위로를 줄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에서 극적으로 탈출 한 후에, 그들은 노예 아니면 홍해 바다로 뛰어 드는 두가지 옵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렵고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불확실성 속에서 저는 우리가 어렵고 피할 수 없는 선택 속에 놓여 있다고 느낍니다.

- 이전에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것을 알면서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교회들, 지금은 끔찍하고 잘 알지 못하는 낯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교회.



- 목회자들은 이집트시절을 위해 훈련을 받았지만, 갑자기 사람들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도록 하라고 내던져졌습니다.
 - 커뮤니티가 서로 화합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이벤트 및 모임이 불가능하고 실제로는 오리려 수퍼전파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
- 나라는 이미 양극화 되어 질병과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조치 방법조차도 더 많은 적대감과 분열을 낳습니다.
 - 학교를 포함한 모든 다양한 일터에서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내려고 합니다.
 - 6개월 지나간 이후, 우리는 가족, 친구, 교회 또는 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이런 사회적 상호 작용 없이 영원히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 리스크속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렵고 피할 수 없는 선택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몇 년 전 우리는 존경받는 교회 컨설턴트 인 Susan Beaumont 목사님으로부터 Adaptive Leadership (변화적응 리더십)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책을 집필 중이었고 쓰고 계신 책이 교회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교회가 임계점에 놓여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계점은 문지방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지금 사라져 갔거나 사라지고 있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은 이 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시간을 말합니다.

어디선가 저는 임계점이란 우리가 주차를 하고, 아마도 내릴 준비를 하고, 아직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찾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대기실과 같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기실에서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실할 수 없다고 알게 되어도 과거로 되돌아 갈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일상이 우리 앞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liminal이라는 단어가 너무 부드럽고 Wooley-Wooley 처럼 신비로운 말처럼 들립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지금 저에게 부드럽거나 신비롭거나 쉽게 느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거의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결정해야 할 시간이 빠듯한

홍해의 벽에 부딪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어렵고 피할 수 없는 선택 사이에 놓여있다는 느낌이 더 많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어렵고 피할 수 없는 선택 사이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남겨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기억 하시나요? 모세가 히브리인과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 백성을 노예에서 이끌어내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러 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그와 함께 할 것이라는 표징으로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가 그 일을 맡아 하도록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 묻습니다. 지팡이입니다. 그의 지팡이는 그의 손과 팔이 더 길게 연장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도 그 지팡이를 사용하여 이집트 군인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우물에서 여성들을 괴롭히는 남성들을 위협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중엔 그와 결혼하려 온 여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집어 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피할 수 없는 선택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없는 우리들의 앞길에 방법을 보여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 있다면.

다음 구절은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에 앞서서 가며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구름 속에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두 구절에서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 하시는지 제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가장 놀랍고 예상치 못한 방식이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실 것인지 추측하지 마십시오. 이야기의 요점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움과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려움과 피할 수 없는 선택 사이에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모세는 주의하지 않으면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지팡이가 오용 될 수 있음도 배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대로 말로 하지 않고 물을 얻기 위해 지팡이를 바위를 치는 데 사용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교인들을 인도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감정표현과 영향력을 절제하지 못하고 성질을 내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몇 달 동안 서로 대면하지 못하게 되면서 부드럽게 말하는 자연스러운 성향이 사라질 수도 있고,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불안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모임이나 성경 공부에서 또는 다른 어떤 모임에서 우리의 분노와 좌절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인도를 받은 백성은 물이 갈라지면서 홍해로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람이 불고 마차가 진흙 속에 가라 앉는 동안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얇은 물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든지 간에 모세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신뢰의 결과로 그들은 우리가 물로 세례 받고 새 생명이 되는 것처럼 물에서 나왔습니다.

어렵고 피할 수 없는 선택 사이에 놓인다는 것은 쉽지않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일, 심지어 겁나는 일과 위험을 감수하며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